

# 내외통제성, 가족의 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Perceived Family Support,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김애경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Lecturer : Kim, Ae Ky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연구 방법 | IV. 논의 및 결론    |
| 참고문헌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perceived family support,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The subjects were 285 6th and 8th grade students and their homeroom teachers.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Duncan pos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 locus of control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and negatively related to antisocial behavior. Perceived family support,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and negatively related to antisocial behavior. Second, girls were hig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and lower in antisocial behavior than boys. The 8th graders had lower scores than 6th graders in perceived family support,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and higher level of antisocial behavior. Third,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family adaptability impacted social competence in girls, and grade impacted social competence in boys. Grad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ntisocial behavior in boys,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mpacted antisocial behavior in girls.

◆ 주요어: 사회적 행동,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 가족적응

## I. 서 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질은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거나에 따라 긍정적 사회적 행동과 부정적 사회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긍정적 사회적 행동의 한 영역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에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유능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 향상시키는 반응 및 능력으로서 적응적 행동, 사회적 기술, 또래 수용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Gresham, 1986).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나 성인에게 수용과 인기가 높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능력을 키워가지만,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면 또래나 성인에게 배척되어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초기 학업중퇴, 반사회적 행동, 비행 및 폭력, 약물남용, 우울, 자살 등 학교생활 이후까지 심각한 부적응과 부정적 사회적 행동을 초래할 수가 있다(Matlack, McGreevy, Rouse, Flatter & Marcus, 1994; Merrell & Gimpel, 1998; Simonian, Tarnowski, & Gibbs, 1991).

이러한 사회적 행동에 대해 Merrell(1993:2)도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부적 관련성을 지지하여 사회적 유능성에는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수용이 포함되지만, 반사회적 행동은 사회화과정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요소와 또래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척도(School Social Behavior Scale: SSBS)를 개발하여 교사평정방식에 의한 사회적 행동연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학교폭력과 또래괴롭힘이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 반사회적 행동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발달에 매우 의미있

는 일로 여겨진다.

반사회적 행동감소에 사회적 유능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Frey, Hirschstein, & Guzzo, 2000; Loeber & Farrington, 1998), 사회적 유능성과 개인 및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어왔다(김애경, 2001). 특히 가족환경은 생의 초기부터 사회화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일차적 환경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부적응을 경감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자, 미래의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학습의 장이 된다. 동시에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여 적절한 사회적 판단과 조절을 할 줄 아는 책임있는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나 가족의 기능은 간과할 수 없는 근접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 및 폭력이 가족세대간 전이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주장(Emery, 1989)은 자녀의 행동문제가 가정에서 학습된 결과이며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후기와 청소년초기는 발달상 과도기로 자율과 독립욕구, 역할갈등, 현실과 이상의 불균형, 성인역할의 금지와 이에 대한 강한 호기심 등으로 커다란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가족의 충분한 지지와 친밀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가족의 지지란 가족으로부터 받는 관심, 도움, 격려, 인정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로 가족으로부터 지지의 인식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도현심(1994)은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초등 6학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사교성, 사회적 참여도, 인기도, 리더쉽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기능 및 역동성을 반영하는 가족옹집성은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 및 결속력을 의미하는데 비해, 가족적응력은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발달과정상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권리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Olson, et al., 1983), 사회적 유능

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Matlack 등(1994)은 가족기능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가족응집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은 높지만, 사회적 기술과 가족적응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해 가족응집 및 적응과 사회적 유능성간에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사회적 유능성을 초기애착, 대인문제해결력, 부모양육행동 및 태도, 부모언어통제유형, 사회경제적 수준 및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 사회적 유능성을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더 나아가 대다수 기존연구들은 그 대상을 취학전 유아에 국한하였거나(윤정진·정옥분, 1994), 사회적 유능성의 평가를 어머니(부모)보고방법에 주로 의존해왔다(김선미, 1994; 정현희·최경순, 1997; 최경순·정현희, 1997; 이경희·정옥분, 1994). 사회적 유능성이 아동과 청소년기의 적응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부모보고방식이 갖는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사회적 유능성의 측정에서도 객관적인 교사평가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아동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평정방식에 의한 사회적 유능성이 가족의 지지와 가족응집 및 적응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가족환경이 개인의 행동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자녀가 가족의 지지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적응이 적고(김명숙, 1994; 한미현, 1995; Windle, 1991), 가족응집 및 적응과 행동문제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거나(정나영·이정숙, 1999; Gorman-Smith, Tolan, Zelli & Huesmann, 1996; Shields & Clark, 1995), 혹은 Circumplex model의 곡선성의 주장에 따라 가족응집 및 적응정도가 양극단에서 벗어난 중간수준인 균형 가족일 때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 적음을 밝혀왔다

(오치선·오윤선, 2001; Olson et al., 1983; Radick, Henggler & Hanson, 1986). 그러나 가족지지 및 가족기능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밝힌 종래 연구들은 행동문제의 측정 또한 주로 부모평가방식으로 행해졌고(김명숙, 1994; 정나영·이정숙, 1999; 한미현, 1995),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비행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오치선·오윤선, 2001; Matlack et al., 1994; Shields & Clark, 1995). 반사회적 행동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그 시기가 빠를수록 더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반사회적 행동감소를 위한 개입활동 및 관련변인의 탐색은 어린 학령기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변인과 함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예언변인으로 개인의 인성특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성특성 가운데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와 원인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인과적 신념으로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im, Sandler & Tein, 1997). 내외통제성은 그 책임소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노력, 능력 등 내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통제가능성을 믿는 내적 통제성과 외부의 타인, 행운, 과제난이도, 우연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외적 통제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해결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적극성, 사회성, 인내성, 친사회적 행동, 협조성, 정서적 조절능력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 경험한다. 반면에 외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적대적, 공격성향이 높아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박영신·김의철, 1998; Duke & Nowicki, 1973). 이처럼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행동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성과 학년변화로 인해 사고와 대인관계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외통제성과 가족지지, 가족응집 및 적응성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미흡한 상태이고, 그나마 아동과 청소년 중 어느 한

대상만을 가지고 성과 학년간 차이를 분석한 편이며, 그 결과 또한 상호일치를 보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내외통제성과 가족기능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간에 그리고 남녀간에 이들 변인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SSBS에 대한 국내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결과들이 그 하위요인에서도 미국아동의 결과와 동일하게 도출될 것인지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변인인 내외통제성과 가족변인인 가족의 지지와 가족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성과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기여양상을 성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행동발달과 적응력을 도모하고, 반사회적 행동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1-1.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1-2. 가족지지, 가족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사회적 행동은 가족응집 및 적응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 및 적응성,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성, 학년,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중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1시내에 있는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표집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338명과 그들의 담임교사를 한 쌍으로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 결손가정과 학생용 및 교사용 질문지가 서로 짹이 맞지 않거나, 질문지 응답에 한 문장이라도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시켜 285쌍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81명(남: 77명, 여: 104명), 중학교 2학년은 104명(남: 39명, 여: 65명)으로, 연령범위는 12~16세였다. 평균연령은 6학년이 13.5세, 2학년이 15.4세이었다. 부모의 학력분포는 아버지가 고졸 38%, 대졸 51%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62%, 대졸 30%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내외 통제성 척도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통제소재척도를 정은주·손진훈(198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지적이고 학업에 관련된 행동에 대한 신념과 미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부모나 친구와 관련된 행동·강화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들을 측정한다.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며, 채점은 내적통제일 경우 1점, 외적통제일 때는 0점을 주어 점수범위가 0점~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69 이었다.

#### 2) 가족의 지지 척도

가족의 지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지지척도 가운데 가족관련문항인 가족의 지지척도(8문항)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반응한다. 부정적인 진술문은 역채점하여 점수범위는 8점~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3)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 척도

가족간의 심리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와 Bell(1982)의 가족응집 및 적응척도(FACES 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응집성 차원은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등에 관한 16문항이며, 적응성 차원은 가족내의 의견주장, 통제, 훈육,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과 관련된 1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 까지 Likert형 5점 척도에 반응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범위는 가족응집성이 16점~80점까지이며, 가족적응은 14점~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 및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가족응집이 .71, 가족적응은 .69 이었다.

### 4) 사회적 행동 척도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Merrell(1993)의 학교 사회적 행동척도(SSBS)를 사용하였다. SSBS는 미국의 유치원아동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로 학교장면에서 초·중학생의 사회적 행동을 교사가 평가하는 검사이다. 총 65문항으로 긍정적 사회적 행동(사회적 유능성)과 부정적 사회적 행동(반사회적 행동)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유능성척도는 32문항으로 교육상황에서 적응적, 친사회적인 행동능력을 나타내, 그 하위요인에는 또래로부터 사회적 수용감을 얻고 긍정적 대인 관계형성과 관련되는 대인관계기술(14문항)과 자기 억제, 협동, 학교규칙 및 기대에 부응하는 자기관리 기술(10문항), 그리고 학습과제에 대한 유능한 수행 및 참여활동을 반영하는 학습활동기술(8문항)의 3요인이 포함된다. 반사회적 행동척도는 33문항으로 친구로부터의 배척, 교사와 긴장된 관계 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행동을 반영한다. 하위요인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친구를 괴롭힘으로써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적대성-충동성(14문항)과 학교규칙위반, 남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행동인 반사회적-공격성(10문항), 그리고 학교활동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요구와 관련되는 파괴-강요(9문항)의 3요인으

로 이루어진다(Merrell,1993:3-6). 교사는 아동에 대한 평소 관찰에 근거하여 각 문항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따라 '그런 적이 없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사회적 유능성이 32점~160점, 반사회적 행동은 33점~165점의 분포를 보인다. 사회적 유능성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의미하지만,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행동척도의 번안은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시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포대학원생에 의해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교수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토의뢰하여 원문항의 내용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사회적 유능성척도의 하위요인이 .79~.89, 전체는 .93이고, 반사회적 행동척도에서는 하위요인이 .87~.90이고, 전체는 .9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는 초등 6학년 6학급과 중학교 2학년 4학급의 총 10학급에서 338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들이 각 학급 아동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하여 학년말인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교사평정지인 사회적 행동척도는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문항에 대한 평정요령을 설명하고 문항들을 숙지하도록 한 다음, 각 학급에서 무선적으로 학생을 선택하여 선정된 학생의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 등 학생용 질문지는 학급의 자연스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선정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응답하게 한 후 즉각 회수되었다.

####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되었는데,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옹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가족옹집 및 적응유형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다음 변인들의 성과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하였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 변인의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옹집, 가족 적응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1)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개인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내적 통제성은 사회적 유능성 요인 중에서 학습활동기술을 제외하고 대인관계기술 및 자기 관리기술과 사회적 유능성 전체점수( $r=.14$ ,  $p<.05$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내적통제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 $r=-.16$ ,  $p<.05$ )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내적통제성은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 중에 반사회적 행동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내적 통제성이 높은 아

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은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적게 나타났다.

#### 2) 가족지지, 가족의 옹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가족변인인 가족지지, 가족옹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가족의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2$ ,  $p<.001$ ),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19$ ,  $p<.001$ ). 가족옹집 및 적응성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 가운데 적대감-충동성 요인을 제외하고 가족옹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유능성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가족지지와 가족옹집, 가족적응성간에는 상호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유능성의 모든 요인들은 반사회적 행동요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와 옹집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행동발달은 가족의 옹집 및 적응성과 곡선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Olson 등(1983)의 견해를 고려하여 가족옹집 및 적응유형에 따라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옹집과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여  $M+/-0.5 \times SD$ 를 기준으로 가족의 옹집은 그 정도에 따라 낮은 집단부터 분리, 균형, 속박집단으로 나누고, 가족 적응성도 낮은 집단부터 경직, 균형, 혼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가족의 옹집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

<표 1> 내적 통제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 $N=285$ )

	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기술	자기관리 기술	학습활동 기술	사회적 유능성전체	적대감 -충동성	반사회성 -공격성	파괴성 -강요	반사회적 행동전체
내적통제성	.13*	.15*	.11	.14*	-.13*	-.15*	-.18**	-.16*

\*  $p<.05$  \*\*  $p<.01$

〈표 2〉 가족지지, 가족응집, 가족적응성과 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N=285)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가족지지	1.00	.27***	.33***	.19***	.21***	.21***	.22***	-.15*	-.17**	-.23***	-.19***
2 가족응집		1.00	.44***	.13*	.12*	.16**	.15*	-.12*	-.15*	-.13*	-.14*
3 가족적응			1.00	.16**	.15**	.18**	.17**	-.11	-.14*	-.16**	-.15*
4 대인관계기술				1.00	.83***	.78***	.96***	-.44***	-.34***	-.43***	-.44***
5 자기관리기술					1.00	.79***	.93***	-.56***	-.49***	-.51***	-.57***
6 학습활동기술						1.00	.90***	-.51***	-.52***	-.54***	-.56***
7 사회적 유능성 전체							1.00	-.53***	-.46***	-.51***	-.54***
8 적대감-충동성								1.00	.78***	.81***	.95***
9 반사회성-공격성									1.00	.76***	.90***
10 파괴성-강요										1.00	.91***
11 반사회적 행동 전체											1.00

\* p&lt;.05 \*\* p&lt;.01 \*\*\* p&lt;.001

〈표 3〉 가족의 응집 및 적응유형별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유형(N)	M (SD) / Duncan	F
가족 응집	사회적 유능성	분리( 82)	102.13 (19.85) A	5.57**
		균형(102)	111.67 (20.49) B	
		속박(101)	111.89 (20.82) B	
가족 적응	반사회적 행동	분리( 82)	69.51 (21.64) A	3.17*
		균형(102)	61.41 (20.49) B	
		속박(101)	60.85 (20.23) B	
가족 적응	사회적 유능성	경직( 84)	99.67 (19.39) A	6.95***
		균형(118)	108.42 (20.01) B	
		혼돈( 83)	110.84 (22.28) B	
	반사회적 행동	경직( 84)	70.69 (21.08) A	3.34*
		균형(118)	60.19 (20.19) B	
		혼돈( 83)	61.56 (20.75) B	

\* p&lt;.05 \*\* p&lt;.01 \*\*\* p&lt;.001

성(F=5.57, p<.01)과 반사회적 행동(F=3.17,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가족의 적응유형에서도 사회적 유능성(F=6.95, p<.001)과 반사회적 행동(F=3.34, p<.05)이 적응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Duncan 사후검증결과, 가족응집이나 적응유형 중 균형과 속박집단, 그리고 균형, 혼동집단이 분리나 경직집단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았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극단적인 응집 및 적응 유형 중 낮은 응집과 낮은 적응성임을 시사한다.

## 2. 내외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행동의 성별, 학년별 차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내적 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 가족적응성과 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학년간 t검증을 하였다. 〈표 4〉를 보면, 가족지지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내적 통제성과 가족응집 및 적응,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및 전체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

〈표 4〉 변인들의 성별, 학년별 t검증 결과

	남	여		초등 6학년	중 2학년	
	M (SD)	M (SD)	t	M (SD)	M (SD)	t
내적통제성	24.64 ( 4.83)	25.74 ( 3.92)	-2.08*	25.42 ( 4.08)	24.95 ( 4.88)	-0.68
가족지지	25.96 ( 4.82)	25.98 ( 4.02)	- .02	26.51 ( 4.51)	25.01 ( 3.91)	-2.82**
가족응집	50.10 ( 5.04)	51.75 ( 5.11)	-2.03*	51.73 ( 4.87)	47.65 ( 5.82)	-6.31***
가족적응	47.20 ( 4.46)	49.77 ( 4.12)	-4.08***	49.86 ( 4.17)	46.73 ( 6.48)	-4.93***
사회적 유능성전체	101.78 (20.12)	109.69 (20.93)	-3.17**	108.74 (22.95)	102.53 (16.13)	-2.42*
대인관계기술	43.89 ( 9.62)	47.17 ( 10.06)	-2.73**	46.74 ( 10.92)	44.27 ( 7.92)	-2.01*
자기관리기술	31.90 ( 6.88)	34.55 ( 6.78)	-3.20**	34.10 ( 7.52)	32.38 ( 5.62)	-2.02*
학습활동기술	25.98 ( 5.43)	27.97 ( 5.63)	-2.95**	27.90 ( 6.12)	25.87 ( 4.37)	-2.95**
반사회적 행동전체	72.16 (23.77)	61.46 (20.92)	3.99***	69.65 (21.58)	62.90 (21.51)	2.23*
적대감-충동성	30.96 ( 8.89)	27.05 ( 8.91)	3.12**	27.52 ( 8.08)	30.18 ( 8.75)	2.41*
반사회성-공격성	21.61 ( 7.97)	17.65 ( 6.29)	4.65***	18.33 ( 7.07)	20.64 ( 7.01)	2.09*
파괴성-강요	19.58 ( 6.86)	16.74 ( 6.08)	3.65***	17.05 ( 6.50)	18.83 ( 6.05)	2.00*

\* p&lt;.05 \*\* p&lt;.01 \*\*\* p&lt;.001

아가 남아보다 내적 통제성과 가족결속력 및 변화대처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은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학년에 따른 제 변인의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내적 통제성을 제외하고, 가족지지, 가족응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 3.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설명력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 대상아동 전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성, 학년, 내적통제성, 가족지지, 가족응집, 가족적응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지지가 사회적 유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었고( $\beta = .22$ ,  $p < .001$ ), 그 다음이 아동의 성과 학년 순으로, 이들 변인이 사회적 유능성 변량을 10% 설명하였다. 특히 남아는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여아는 가족지지와 가족적응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동의 성이 반사회적 행동

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beta = .27$ ,  $p < .001$ ), 그 다음이 가족지지와 내적통제성 순으로 이들 변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11%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가족지지는 남녀 공히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는데(남: $\beta = -.22$ , 여: $\beta = -.20$ ), 특히 남아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고, 가족지지와 내적통제성이 낮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높아 이들 변인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이 20% 설명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내외통제성과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을 밝혀보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과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 및 선도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통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내적 통제성과 사회적 유능성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김선미, 1994; 최경순·정현희,

〈표 5〉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beta$	R <sup>2</sup>	F
전체	사회적 유능성	가족지지	1.04	.22***		
		아동의 성	-7.90	-.19***		
		아동의 학년	-2.66	-.12*	.10	F= 9.86***
	반사회적 행동	아동의 성	3.96	.27***		
		가족지지	-.28	-.17**		
		내적 통제성	-.20	-.12*	.11	F=11.26***
남아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학년	-4.94	-.23*	.05	F=6.30*
	반사회적 행동	아동의 학년	2.71	.37***		
		가족지지	-.31	-.22*		
		내적 통제성	-.25	-.19*	.20	F=12.42***
여아	사회적 유능성	가족지지	1.34	.26***		
		가족적용	.83	.16*	.09	F=8.23***
	반사회적 행동	가족지지	-.30	-.20*	.05	F=6.69*

성별: 남=1, 여=0.

\* p&lt;.05 \*\* p&lt;.01 \*\*\* p&lt;.001

1997), 외적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많다는 선행연구(박영신 & 김의철,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원인을 자기내부에 있음을 지각하여 스스로 책임지려할 때 대인관계도 원만히 유지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지향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도 적게 보이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아동일수록 개인의 태도나 행동보다는 운명이나 행운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외적 통제성이 높은 아동에게 중점을 두어 내적 통제성 및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가족옹집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들은 가족 간의 웅집이 낮고 관여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많다는 기존연구결과(Gorman-Smith, et al., 1996; Loeber, & Farrington, 1998)와 일치한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격려, 인정을 받고 가족간 정서적 유대가 긴밀하고, 변화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수용감, 안정감, 자신감, 적극성을 심어주어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고 반사회적 행동은 감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족이 점차 해체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이 시점에서 자녀의 사회적 행동발달에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대인관계기술을 배우는 근원적 학습의 장이므로 부모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가질 때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김애경, 2001; Clark & Shields, 1997).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수용하려는 지도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공감적, 반영적 경청과 공유감 등 긍정적 의사소통기술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내적 통제성, 가족옹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았다. 이런 내적 통제성에서의 성차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릴 때 정신적 성숙이 더 빠르다는 맥락에서 내적 통제신념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빨리 발달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옹집과 적응성에서의 남녀차이는 남아가 자기감정과 욕구표현이 억제적인 반면에, 여아는 솔직한 자기개방으로 대화가 활발함

으로써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이나 변화대처능력의 형성에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에서 성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기존연구(Margalit & Eysenck, 1990; Merrell, 1993)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아는 양보, 배려, 공감 등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 및 성적 기대감에 의해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유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수의 선행연구와 같이, 남아가 여아보다 반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여아의 반사회적 행동은 남아보다 더 늦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견해(Loeber & Hay, 1997)와 남아가 여아보다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공격행동에 대한 역치가 낮아 쉽게 반사회적 행동이 표출된다는 주장(Liisa & Marjaana, 1997)과 그리고 공격의 표현방식에도 남아는 공격성을 외부로 직접적, 신체적으로 표출하는데 반해, 여아는 간접적, 언어적, 심리, 관계지향적 공격을 더 지향한다는 결과들(Crick & Grotpeter, 1995)이 이를 설득력있게 설명해준다. 이런 연구에 근거해 볼때, Zoccolillo(1993)가 주장한 대로,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배제한, 진정한 성차이를 볼 수 있는 행동문제에 관한 적절한 성-특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편, 변인들의 학년간 차이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가족지지, 가족옹집 및 적응성과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자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부모의 간섭과 권위에 반항하고 가족들로부터 이탈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Merrell(1993)은 사회적 행동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유능성 중 대인관계와 자기관리기술에서만 약간 감소할 뿐,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유능성 요인 모두가 유의하게 낮고 반사회적 행동은 높아졌는데, 이것은 우리학생들이 미국학생들에 비해 학년증가에 따른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해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기회는 점점 적고, 부정적 경험과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

방노력은 특히 가족기능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유능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지지적인 학교 및 사회적 환경이 요청된다.셋째,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제 변인들의 설명력을 성별로 탐색한 결과, 남아는 학년이 낫고, 여아는 가족지지와 가족적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아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과 기대를 습득하여, 대인관계나 정서적 지향을 하는 여아에 비해 과제지향과 독립욕구를 지향하게 되고(Margalit & Eysenck, 1990), 동시에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따른 공격충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충동조절 미숙 등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아는 가족지지 및 가족적용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히 관련있는 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대인관계나 가족간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두도록 강화 받았기 때문에, 여아의 가족지지와 변화대응력은 사회적 관계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남녀 모두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낮았는데, 이는 가족의 관심과 존중 및 격려가 남녀 상관없이 반사회적 행동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 및 선도에 부모형제의 정서적 지지전략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남학생에게서 학년이 높고, 외적 통제적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교로 가면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과 함께 학교와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시험과 공부압력이 가중되어 학업에서의 실패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분노감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와 건전한 또래에게 거부당하고 이탈된 친구와 어울리면서 반사회적 행동에 쉽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노력은 초등학생 때부터 특히 외적통제성 경향이 높은 남아를 중심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제공과 함께 감정이입,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등에 역점을 둔 사회적 기술 훈련과 내적통제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몇가지 제한점을 밝히는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과 가족변인에 초점을 두어 그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으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변량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것은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학교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의 설명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가족변인과 아울러 또래, 교사, 학습관련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과 관련해 통제소재의 단일차원만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귀인의 다차원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긍정적, 부정적 사건과 이에 따른 노력, 능력, 운, 과제난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귀인에 대한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지지 및 기능에 대해 자녀의 주관적 지각에 토대를 두었으므로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시각도 함께 고려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사보고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유능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개인 및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사회성 발달보다는 학업성적위주의 지적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유능성 증진과 반사회적 행동예방을 위한 가족 및 학교 상담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1월 13일

### 【참고문헌】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미(199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49-163.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

- 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도현심(1994).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영신·김의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윤정진·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8(2), 311-331.  
 오치선·오윤선(2001). 가족체계유형의 청소년 적응 및 학교생활 리더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75-98.  
 이경희·정옥분(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5), 109-123.  
 정나영·이정숙(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웅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정현희·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최경순·정현희(1997). 유아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31-243.  
 한미현(1995).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lark, R. D., & Shields, G.(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 81-92.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Duke, M. P., & Nowicki, J. R.(1973). Personality correlates of the Nowicki Strickland locus of control scale for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33, 267-270.  
 Emery, R. E.(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321-328.

- Frey, K. S., Hirschstein, M. K., & Guzzo, B. A.(2000). Second step: preventing aggression by promoting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2), 102-112.
- Gorman-Smith, D., Tolan, P.H., Zelli, A., & Huesmann, L.R.(1996).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violence among inner-city minority youth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115-129.
- Gresham, F.M.(1986). Conceptu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P. Strain, M. Guralnick, & H. Walker(Eds.), *Children's social behavior: Development, assessment, and modification*(pp.143-179). NY: Academic.
- Kazdin, A. E.(1997). Practitioner review: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161-178.
- Kim, L. S., Sandler, I. N., & Tein, J. Y.(1997).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5-129.
- Liisa, K.J., & Marjaana, L.(1997). Evaluation of theft, lying, and fight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6(4), 467-483.
- Loeber, R., & Farrington, D. P.(1998).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Loeber, R., & Hay, D.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Loeber, R., & Stouthamer-Loeber,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rgalit, M. & Eysenck, S.(1990). Prediction of coherence in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family climat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510-521.
- Matlack, M. E., McGreevy, M. S., Rouse, R. E., Flatter, C., & Marcus, R. F.(1994). Family correlates of social skill deficits in incarcerated and non-incarcerated adolescents. *Adolescence* 29, 117-132.
- Merrell, K. W.(1993). *Test Manual for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 Merrell, K. W. & Gimpel, G.A.(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J: LEA.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Rodick, J. D. Henggeler, S. W. & Hanson, C. 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Shields, G. & Clark, R. D.(1995). Family correlates of delinquency: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2 (2), 93-106.
- Simonian, S.J., Tarnowski, K. J., & Gibbs, J. C.(1991). Social skills and antisocial conduct of delinqu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2, 17-27.
- Windle, M.(1991). The difficult temperament in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substance use, family support,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2), 310-315.
- Zoccolillo, M.(1993).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5-78.